


# OECD - FSC - KIF

## 라운드테이블: 아세안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

### 행사어젠다

OECD, 한국금융위원회 (FSC), 한국금융연구원 (KIF) 주최

 2024년 3월 18-19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2층)  
(대면 회의)

[www.oecd.org/finance/financial-markets/roundtable-digital-finance-asean.htm](http://www.oecd.org/finance/financial-markets/roundtable-digital-finance-asean.htm)



대한민국 정부 후원

# OECD - 금융위원회 - 금융연구원 라운드테이블

## : 아세안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

아세안(ASEAN) 지역은 모바일 인터넷 활용도가 높고 디지털에 능숙한 젊은 인구층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은행 금융층 또는 은행서비스 이용 소외자 층에 속하는 다소 상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아세안 국가에서 1인당 주요 암호 자산 흐름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암호자산 가치 상승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동 시장 내 투기 세력이 다수 포진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세안 암호화폐 이용자의 경우 금융 포용에 대한 인식의 일환으로 해당 자산을 이용하려는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암호자산 시장의 경우 대부분은 관할권에 따른 금융 규제가 없거나 금융 안정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시장 무결성 및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전통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이용자들을 주요 위험에 쉽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외 기타 디지털 금융 관련 톨의 경우 아세안의 금융 포용을 위한 주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및 중소기업(MSME) 금융에 있어 이에 대한 특성을 더욱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페일러(Thin-file client)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신용평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출 리스크 보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DLT 기반 금융과 자산 토큰화의 경우 소액 거래 서비스 비용을 낮춰 이용자 거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자산 분할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새로운 자본 축적 형성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에는 여전히 완화되어야 할 과제와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OECD,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 주최하는 금번 라운드테이블은 OECD 금융시장위원회(CMF)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아세안 및 기타 지역에 금융 부문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개발 또는 정책 프레임워크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로서 금융 리스크 해소 및 동 혜택 활용 방안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금융 정책 입안자들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보다 효율적, 포용적이며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양성하기 위해 이를 원동력으로써 수용해 왔습니다. 책임감 있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은 금융 포용 및 생산성 향상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이용자 및 새로운 금융 시장리스크를 예측 및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라운드테이블은 아시아 및 OECD 회원국의 재무 및 금융 규제 당국, 중앙은행, 기타 주요 금융기관의 고위급 공무원과 국제기구 및 싱크탱크 전문가, 민간 부문 대표 및 학계 인사들의 참석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연락처

**Serdar Çelik** | [Serdar.Celik@oecd.org](mailto:Serdar.Celik@oecd.org)

금융기업국(DAF), OECD

자본시장·금융기관실장

**Iota Kaousar Nassr** | [Iota.Nassr@oecd.org](mailto:Iota.Nassr@oecd.org)

금융기업국(DAF), OECD

선임정책분석관, 자본시장·금융기관실

**김서현** | [Seohyun.Kim@oecd.org](mailto:Seohyun.Kim@oecd.org)

금융기업국(DAF), OECD

정책분석관, 자본시장·금융기관실

**정수중** | [sooojj@korea.kr](mailto:sooojj@korea.kr)

한국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

**서병호** | [bhsuh@kif.kr](mailto:bhsuh@kif.kr)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

**문수영** | [symoon@kif.re.kr](mailto:symoon@kif.re.kr)

한국금융연구원

총무팀

### 행사 페이지

[OECD-FSC-KIF Roundtable on Digital Finance in ASEAN](#)

# OECD - 금융위원회 - 금융연구원 라운드테이블 : 아세안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

## 1 일차

9:30 - 10:00

📄 등록 및 웰컴 커피

10:00 - 10:20

개회사

김소영

한국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Carmine Di Noia

OECD 금융기업국 디렉터

아세안 DeFi 및 핀테크 OECD 보고서 런칭

10:20 - 10:30

📄 단체 사진 촬영

10:30 - 12:00

세션 1: 디지털 자산, CBDC, 자산토큰화 및 DLT 기반 금융: 아시아의 관점

디지털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 참여자, 시민, 정책 입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DeFi) 프로토콜을 포함한 암호 자산의 시가총액은 2024년 1월 말 기준 1조 6천억 달러(2021년 말 최고 3조 달러)를 기록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은 1,400억 달러까지 달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93%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파일럿 실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향후 최대 15개의 소매용(Retail) CBDC와 9개의 도매용(Wholesale) CBDC가 공식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금융상품의 경우 자산 토큰화된 상품(토큰화된 예금 자산 포함)을 비롯한 기타 형태의 DLT 기반 금융이 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이 더욱 널리 사용될 경우 증권의 거래 또는 가격, 증권의 유동성 및 청산·결제 프로세스, 레포(Repo) 및 증권 대출과 같은 유사 활동까지 주요 금융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디지털 자산, CBDC, 자산토큰화에 대한 주요 동향 및 발전에 대해 논의하며 아시아 시장의 결제 및 사후 거래에 어떠한 디지털 혁신을 적용할지, 이에 대한 현황 및 향후 발전 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및 전 세계 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국경 간 CBDC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도 살피고자 합니다. 또한 동 세션에서는 금융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향후 관심을 표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세션 모더레이터

Sonja Davidovic

Senior Advisor, 국제결제은행(BIS)

### 패널토론 참석자

윤성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부장, 한국은행(BOK)

**Sopnendu Mohanty**

Chief FinTech Officer, 싱가포르 통화청(MAS) [recorded video]

**Novita Bachtiar**

Deputy Director, Digital Finance Innovation Group, 인니 금융청(OJK)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Yam Ki CHAN**

Vice President, Strategy and Policy, 써클(Circle)

**Kazumasa Miyazawa**

President, 소라미츠(Soramitsu)

**Ole Rummel**

Director, Macroeconomics and Monetary Policy Management, SEACEN 센터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4:00** **세션 2: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디파이(DeFi)의 한계: ASEAN 으로 부터의 교훈 (OECD 발표)**

암호자산,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DeFi) 프로토콜을 포함한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sed Finance) 시장은 금융 포용을 촉진하는 도구로 마케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의 현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탈중앙화 금융은 금융 민주화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본 목적과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리스크 및 투자 손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2022-2023 년 동안 암호화폐 자산 시장 침체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겨울(Crypto Winter)'은 일부 손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대규모 투자자들과 달리 많은 개인 소액투자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금융 포용을 위한 디파이(DeFi)의 한계: ASEAN 으로 부터의 교훈'이란 라운드테이블 OECD 런칭 보고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아세안 경제와 그 밖의 국가들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디파이 및 암호자산이 지급 결제 촉진 등과 같은 시장 효율화를 위한 활용 사례보다, 시장 내 투기 세력의 성행 및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시장 참여가 이루어 졌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션 발표자**

**Carmine Di noia**

OECD 금융기업국 디렉터(Director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OECD)

**참고문헌**

- OECD (2024), The limits of DeFi for financial inclusion: Lessons from ASEAN

**14:00 – 15:30** **세션 3: 아세안과 전세계의 디파이 및 암호자산 시장**

암호자산 및 디파이(DeFi) 프로토콜을 포함한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sed Finance)은 대부분의 주요 아세안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2023 년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 침체의 첫번째 근원은 테라-루나 사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바로 2022 년 말 FTX 사태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암호자산의 시가총액은 2024 년 1 월말 기준 1 조 6 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최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향후 기관 투자자들도 암호 자산에 대한 투자가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 자산의 규모 및 주요 금융시장과의 제한된 상호 연결성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내 동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유럽의 MiCA,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의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FSB) 프레임워크는 암호자산과 디파이(DeFi) 활동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체계 마련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의 규제 프레임워크 및 감독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도 향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파이 및 암호자산 시장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아세안 국가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탈중앙화 금융 활동에 대한 동인(動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한 시장 및 시장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세션 모더레이터

##### Mai Santamaria

Head of Financial Advisory team, 아일랜드 재무부(MOF)

#### 패널토론 참석자

##### Peter Goodrich

금융안정위원회(FSB) 사무국 *[recorded video]*

##### Ryosuke Ushida

Chief FinTech Officer, 일본 금융청(FSA)

##### 이정두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 이건호

대표, 금융혁신연구회

##### Philip Gant

Harvard Asia Centre and GBBC Korea Policy Research Advisor

##### Jon Isaksen

Head of Policy, EMEA, 유니스왑(Uniswap)

15:30 – 16:00



커피브레이크

16:00 – 17:30

세션 4: 금융 부문 내 사이버 보안

디지털 기반 금융 상품은 시장 및 시장 참여자들을 사이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버 침해 및 보안에 대한 사고는 글로벌 금융의 시스템 안정성에 충분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AI 모델 및 메커니즘의 등장으로 인해 대규모 사기 및 은닉, 딥페이크를 활용한 시장 조작 전략 등은 빈도 및 정교함 측면에서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에 큰 위협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암호자산 시장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사이버 보안 위험에 관한 최근 동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 위협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글로벌 차원의 정책 대응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 세션 모더레이터

##### Serdar Çelik

자본시장·금융기관실장(Head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Division), OECD

## 패널토론 참석자

### Fusanori Iwasaki

Director for Policy Research,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 Masayoshi Chida

Senior Economist and Head of Outreach, 금융기업국(DAF), OECD

### Chengyi Ong

Head of Public Policy in APAC,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 Hirokazu Ishizuka


CEO, Aspiration Corp. & TERRAS-Company.com

### Takashi Nishina

Principal Business Value Consulting, Palo Alto Networks

## 2 일차

9:30 – 10:00

 등록 및 웰컴 커피

10:00 – 11:30

세션 5: 금융 부문 내 인공지능(AI)의 활용: 아시아의 관점

오늘 날 인공지능(AI) 기술은 풍부한 이용가능 데이터와 저렴한 컴퓨팅 용량의 증가로 인해 자산 관리, 알고리즘 트레이딩, 신용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등 금융 분야 내 많은 도입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AI 도입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금융 소비자에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 및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금융 기관이 비교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금융 부문 내 AI의 활용의 증가는 금융 또는 비금융 리스크를 발생하거나 심화할 수 있으며, 편향된 리스크에 따른 불공정 및 차별적인 금융 상품 소비, 데이터 관리 내 사용 오류 등과 같은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침해에 대한 잠재적 고려 사항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 내 금융 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최신 동향 및 향후 이용 방향, 그리고 AI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정책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세션 모더레이터

#### 박정필

디지털혁신실 혁신기획팀, 한국은행(BOK)

## 패널토론 참석자

### Vanthou Chorn

Deputy Director,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부(MOISTI)

### Laras Ayutirta Pramesti

Enterprise Architect,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 김서현

정책분석관(Policy Analyst), 금융기업국(DAF), OECD

### 이현진

책임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John Ho**

Head, Legal, Financial Markets,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SCB)

**김수진**

연구위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1:30 – 12:30**

 **점심식사**

**12:30 – 13:15**

**세션 6: 아시아 및 아세안 지역의 금융 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활용 (OECD 발표)**

AI 혁신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생성형 AI(Generative AI 또는 Gen AI)와 같은 콘텐츠 생성 기능의 출현 및 다소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생성형 AI 툴 인터페이스는 금융 부문 내 AI 혁신에 대한 관심을 더욱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End-to-End) 자동화를 포함한 인간의 완전한 개입이 없는 금융 시장 내 AI 활용은 아직까진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에 대한 광범위한 도입은 또 다른 금융 시장 리스크를 증가하고 단방향 시장 및 시장 유동·변동성, 시장 상호 연결성 및 시장 집중, 시장 조작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최근 OECD 보고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본 보고서는 고도의 생성형 AI가 금융시장 내 도입되는 현황과 금융 시장 이해 관계자들이 이러한 생성형 AI에 대한 도입을 더디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발표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더 널리 사용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와 이를 대비 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세션 발표자

**Iota Kaousar Nassr**

선임정책분석관(Senior Policy Advisor), 자본시장·금융기관실, OECD

#### 참고 문헌

-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e](#)
-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Big Data in Finance](#)
- OECD (forthcoming) "Mobilising ASEAN capital markets for sustainable growth", Chapter 4

**13:15 – 13:30**

**폐회사**

**서병호**

금융혁신연구실장, 한국금융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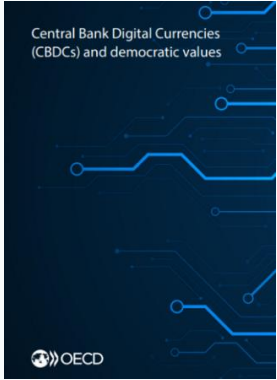
**Iota Kaousar Nassr**

선임정책분석관(Senior Policy Advisor), 자본시장·금융기관실, OECD

# 발간물 목록

## 디지털 자산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and democratic values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주로 금융 중개 및 금융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복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CBDC의 설계와 실행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완화하고, 시민의 공평한 대우, 개인정보 보호, 중앙은행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한 CBDC 시스템의 거버넌스 아키텍처는 이러한 목표를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 Lessons from the crypto winter : DeFi versus CeFi



본 보고서에서는 2022년 9월부터 최근 암호자산 시장의 실패와 관련된 발생한 사건들의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화 금융(CeFi) 및 탈중앙화 금융(DeFi)의 역할과, 암호화폐 시장 카오스가 소매 금융 시장 참여자에게 미친 불균형적인 영향을 평가합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 겨울(Crypto Winter)'이라고도 불리는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 침체 내 교훈을 살펴보고, 암호자산 생태계 내 높은 상호 연결성, 높은 레버리지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DeFi의 신규 조합·구성에 활용되는 정교한 금융공학 메커니즘, 증가된 시장 집중도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해당 분야의 정책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책 권고 사항 또한 제시합니다.



### Why Decentralised Finance (DeFi) Matter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탈중앙화 금융 또는 디파이(DeFi)의 적용의 증가는 기존 금융 시장과의 상호 연결성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이 금융시장 참여자 및 금융시장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 및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디파이 및 동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디파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DeFi의 장점 및 리스크와 DeFi/CeFi와의 교차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 사항도 함께 제시합니다.





### Institutionalisation of crypto-assets and DeFi-TradFi interconnectedness



본 보고서는 암호화폐 자산과 탈중앙화 금융(DeFi)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내 기관 투자자의 참여에 관해 조사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동인(動因) 찾아내고, 이를 고려 및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TradFi 와 DeFi 간의 상호 연결성 증가에 대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둘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성장 시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이후 간략히 설명하고, 금융 서비스의 탈중앙화에 대한 잠재적 이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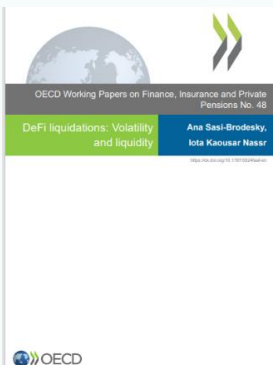
### Environmental impact of digital assets : Crypto-asset mining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consensus mechanisms



암호자산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여 2021 년 말에 약 3 조 달러에 달하게 되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주류 암호자산을 지원하는 인프라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암호 화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작업 증명 합의(PoW) 메커니즘을 통한 에너지 집약적 거래 검증의 사용과 그에 따른 탄소 발자국은 시장 참여자들에 기후 전환 위험을 야기합니다. 특정 디지털 자산의 탄소 발자국 및 관련 기후 전환 리스크는 부정적 외부효과와의 결합을 통해 시 널리 확장된 사회의 현 상황에 따라 향후 정책적 고려 및 조치를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 (Working Paper) DeFi liquidations : Volatility and liqui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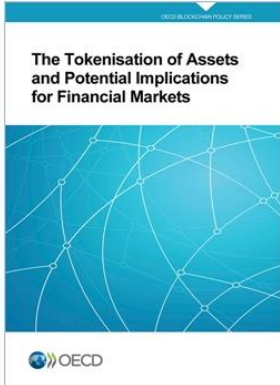


본 연구는 탈중앙화 금융(DeFi) 대출 프로토콜에 내재된 청산 메커니즘과,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청산 및 가격 변동성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합니다. 본 분석은 대형 탈중앙화 금융 대출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세 개의 주요 기관 거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주로 탈중앙화 거래소 풀 내 청산과 청산 후의 가격 변동성 사이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청산자의 행태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관찰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청산자가 대규모 청산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을 필요로 하며, 청산 과정에서 청산자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 자산토큰화와 DLT 기반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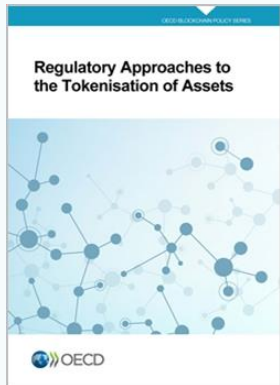
### The Tokenisation of Assets and Potential Implications for Financial Markets



자산 토큰화는 분산 원장에 실물 또는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로 표현하거나 기존 자산 클래스를 토큰화된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산 토큰화는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 및 금과 같은 원자재 상품, 부동산과 같은 기타 비금융 자산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 시장 내 분산원장기술(DLT)에 대한 대표적 사용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 상품과 자산 클래스에 걸쳐 금융 시장 관행 및 시장 참가자, 금융 시장 인프라 및 규제 기관에 대한 잠재적 교차 영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Regulatory Approaches to the Tokenisation of As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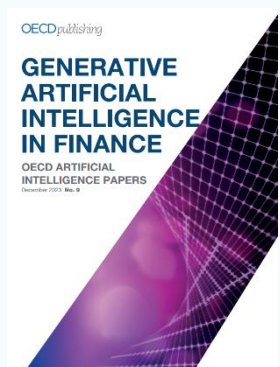


자산의 토큰화는 분산 원장에 실물 또는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기존 자산 클래스를 토큰화된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 보고서는 자산 토큰화에 대한 개념적 명확성과 정책 입안자들이 해당 초기 시장에 대해 채택하고 있는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평가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보고서는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주지해야 하거나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해야 할 토큰화된 자산 및 시장의 주요 규제 이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록에는 자산 토큰화 시장 및 시장 참여자에 대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적 접근 방식을 수록하였습니다.



## 금융 부문 내 인공지능(AI)

###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e



AI 혁신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생성형 AI(Generative AI 또는 Gen AI)와 같은 콘텐츠 생성 기능의 출현과 더불어 다소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툴의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서 금융 분야 또한 AI 혁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개입이 없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자동화를 포함하여 금융 시장에서의 AI 활용은 아직까진 도입 전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에 대한 광범위한 도입은 또 다른 금융 시장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단방향성 시장 뿐만이 아닌, 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 상호 연결성 및 시장 집중, 시장 조작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금융 부문 내 AI의 발전과 잠재적 위험을 소개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어떻게 정책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논의합니다.



##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Big Data in Finance



인공지능(AI) 기술은 풍부한 이용가능 데이터와 저렴한 컴퓨팅 용량의 증가로 인해 오늘 날 자산 관리, 알고리즘 트레이딩, 신용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또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등의 분야에 점차 더 많은 도입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ML) 모델은 빅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간이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경험 및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예측 가능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성능을 학습하고 개선합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신기술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사용과 관련된 혜택 및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동 보고서는 금융 분야의 AI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 안정성, 시장 무결성 및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AI 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책 대응을 제안합니다.



## 오픈 बैं킹 / 오픈 파이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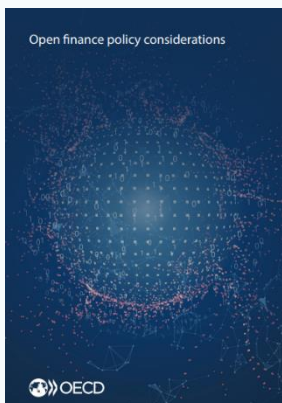
### Shifting from open banking to open finance: Results from the 2022 OECD survey on data sharing frameworks



데이터 공유 방식은 오픈 बैं킹에서 오픈 파이낸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픈 파이낸스로의 진화는 기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결제/거래 데이터를 넘어, 데이터 액세스 및 데이터 소스 공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보험과 같은 다른 금융 영역의 활동도 포함하게 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다양한 유형의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접근 및 공유, 소비자 보호, 운영 및 기술 사양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구체적 규칙 또는 조건을 살펴보고 있으며, 기존 프레임워크가 고객 및 금융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교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 Open finance policy considerations



오픈 파이낸스는 금융 부문 데이터의 공유 및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오픈 파이낸스의 이점 및 리스크, 향후 구현해야 할 과제 등을 분석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이러한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책 권장 사항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금융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를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동의 및 책임과 관련된 기타 소비자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한 여부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핀테크 대출

### Marketplace and FinTech lending for SMEs in the COVID-19 crisis



본 보고서는 온라인 신용 중개 시장형 대출(MPL) 모델의 진화, 은행과의 비교 우위, 대출자, 투자자/출자자 및 중소기업 금융 시장에 대한 혜택 등 대규모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시장형 대출(MPL) 모델의 잠재력을 분석합니다. 또한 이 모델의 위험과 성장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위기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가 활용된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특정 관할권의 정부 보증 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MPL 및 핀테크 대출 기관의 참여와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분석합니다. 이후 이러한 대출 기관들의 참여에 따른 혜택과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위기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교훈을 도출합니다.



## 아시아 디지털 금융

### Digitalisation and Finance in Asia



아시아 지역은 온라인 인터넷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금 없는 결제, 암호자산, 디지털 금융 서비스 사용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데 매우 익숙한 인구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아시아 지역 내 일부 지역은 여전히 은행이 없거나 은행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의 이러한 신기술 영향을 평가하고 아시아 지역 및 그 밖의 금융 분야 내 이러한 기술의 사용 및 혜택과 그 위험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 및 상품의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글로벌 특성으로 인해 규제 및 차익거래를 방지하고, 새로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율된 행동과 정책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 및 대화를 요구합니다.



### Alternative financing instruments for ASEAN SMEs



본 간행물은 중소기업 및 다수의 기업인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침을 동남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리스, 팩토링,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및 비즈니스 엔젤 금융, 전문 중소기업 거래소, 부채 크라우드펀딩/P2P 대출, 주식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기반 금융, 무역 금융 등 전통적인 은행 대출을 넘어서는 8 가지 대체 금융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가 연구

### The FinTech Ecosystem in the Czech Republic



본 보고서는 체코의 핀테크 부문 구조 및 관련 규제·감독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며, 핀테크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잠재적인 장애물을 분석합니다. 시장 혁신, 기회 및 장애물, 데이터 접근 및 사용,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같은 잠재적 이점을 평가한 OECD 설문조사에 대해 체코 핀테크 기업의 응답이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 INNOVATION FACILITATORS / SANDBOXES

#### Supporting FinTech Innovation in the Czech Republic: Regulatory Sandbox Design Considerations



핀테크 부문은 체코의 초기 시장으로, 규제 또는 비규제 핀테크 기업은 현재 체코 내 약 100 개사 이내입니다. 본 보고서는 체코의 핀테크 시장 생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혁신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체코의 특수성에 맞는 규제 샌드박스를 설계하고 핀테크 발전의 장애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이 금융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코 당국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 감독 당국이 핀테크 활동을 더 잘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규정 준수를 잘 따를 수 있게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를 통하여 기업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침을 제정할 수 있어, 기업 및 정부 당국 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 스피커 바이오

### 김소영

한국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한국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199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6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전 그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1경제분과위원회 위원 (2022), CEPR(경제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2019-2022),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1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2016),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2014-2022), 국제결제은행(BIS) 외부 전문가(2014-2015),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2011-2017),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2007-2021, 수시), 홍콩통화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07-2021, 수시), 국제통화기금(IMF) Visiting Scholar(2006-2010, 수시), 한국은행 자문교수(조사국·국제국·경제연구원·외자운용원)(2005-2019, 수시)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2009-現), 프린스턴대학교 Visiting Scholar(2013-2014), 일리노이 주립대학 경제학과 조교수(1997-2004), 스페인 중앙은행 (Bank of Spain) 연구위원으로도 재직했습니다.

###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항용 박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이후 한양 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Journal of Finance,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Journal of Empirical Finance 등 저명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과 거시 경제학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 (Columbia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Carmine Di Noia

OECD 금융기업국 디렉터



Carmine Di Noia 는 OECD 의 금융기업국의 디렉터입니다. 디렉터로 임명되기 전 2016 년부터 2022 년까지 이탈리아의 기업 및 증권 거래소 거래위원회(CONSOB)의 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또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감독위원회 대체 멤버, 시장 분석 위원회(CEMA) 의장, 거래 후 상임위원회 의장,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부의장 직을 역임했습니다.

Carmine Di Noia 는 이전 이탈리아 기업 협회(Assonime)의 자본 시장 및 상장 기업 담당 부국장 겸 헤드였으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증권 및 시장 이해관계자 그룹의 멤버로 두 차례 임기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증권거래소(Borsa Italiana)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Tor Vergata) 대학교에서 경제 이론 및 제도학 박사 학위를,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La Sapienza) 대학교에서 경영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Sonja Davidovic

Senior Advisor, 국제결제은행(BIS)



Sonja는 싱가포르 국제결제은행 이노베이션 허브 (BISIH)의 고문으로 디지털 자산 프로그램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동 직책에서 Sonja는 프로젝트 만다라를 이끌고 프로젝트 마리아나를 공동 주도하고 있습니다. Sonja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휴직 중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파견되어 근무한 바 있습니다.

IMF에서 Sonja는 경제학자이자 기술 대전환과 관련한 디지털 전문가로 근무하였습니다. 동 직책에서 IMF 회원국을 대상으로 CBDC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역량 강화와 기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금융 기술과 디지털 통화에 관한 수많은 분석 및 연구 논문에 기여하고, 더불어 크로스 보더 결제(cross-border payments) 시스템 개선을 위한 G20 어젠다 분석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BIS에 합류하기 전에는 Sonja는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디지털 유로 조사 단계의 시장 인프라 전문가로 근무했습니다. 소냐는 본 대학교 및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윤성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부장, 한국은행(BOK)



윤성관 부장은 1999년부터 한국은행에 근무하고 있으며, 디지털통화연구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그는 조사국, 국제협력국, 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MI)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발휘해 왔습니다.

지급결제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에 다양한 경력을 보유함에 따라,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부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 Sopnendu Mohanty

Chief FinTech Officer, 싱가포르 통화청(MAS)



현재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최고 핀테크 책임자인 Sopnendu Mohanty는 기술 중심 혁신에 관한 개발 전략, 공공 인프라 및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Mohanty는 기술, 운영, 디지털 금융, 투자 전략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ohanty는 글로벌 기술 및 금융 서비스 생태계와 폭넓게 교류하고 있으며, 누구나 주목할 만한 협업 공공재인 API Exchange(APIX),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페이먼트 레일, 데이터 교환 플랫폼, 프로젝트 우빈(Ubin)과 같은 실험적인 프로그램 등을 전두지휘해 왔습니다. 또한 핀테크, 혁신, 포용에 관한 여러 국제적인 글로벌

자문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한 지 5년 만에 싱가포르는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핀테크 허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수많은 활기찬 핀테크 기업의 본거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융 분야의 디지털 기술 적용에 관한 여러 특허를 공동 저술했으며 업계에서 많은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Novita Bachtiar

Deputy Director, Digital Finance Innovation Group, 인니 금융청(OJK)



Novita Bachtiar는 인니 금융청(OJK)의 디지털 금융 혁신, 디지털 및 암호화 자산 규제 및 개발 부서의 부국장입니다. 9년 이상 인니 금융청에서 근무하며 기관 내 다양한 국제 문제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국제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법학 전공자입니다. 인니 금융청에서 근무하기 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 본부의 동남아시아 그룹에서 1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 지역의 로펌과 여러 기술 기업에서 근무했으며,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 내 최대 통신 회사에서 사내 법률 고문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그외에도 인도네시아 대학교 법학대학원의 국제 수업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바 있으며, "핀테크를 통한 중소기업의 금융 포용성 지원"이라는 제목의 인니금융청간행물의 수석 편집자로도 활동했습니다.

##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금융법연구센터장입니다. 그는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기업법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러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증권 규제, 기업, 금융 세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왔으며, 자본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 금융세제 관련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에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제 7회 금융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디지털 자산 관련 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2021),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2022),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2022) 등이 있습니다.

## Yam Ki Chan

Vice President, Strategy and Policy, 씨클(Circle)



Yam Ki Chan은 국제 금융, 기술 및 공공 정책 분야에서 노련한 경력을 쌓은 임원이며, 현재 씨클(Circle)의 전략 및 정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의 경영 리더십은 씨클의 시장 확장 및 공공 정책 참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씨클에 합류하기 전, 구글 페이먼트와 구글 클라우드에서 전략 및 공공 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파트너십 전략, 시장 확장, 대정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구글에 입사하기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내 글로벌 및 아시아 경제 디렉터로 근무하며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전략에 관한 부처 간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G20 및 G7 내 미국 세르파 협상팀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의 직원으로 합류하기 전에 미국 재무부 미중 전략경제대화실과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경력 초기에는 실리콘밸리의 제프리스에서 기술 투자 은행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Yam Ki Chan은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 및 공공 문제 대학원에서 국제 문제 석사 학위를, 칼튼 대학(Carleton College)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Kazumasa Miyazawa

President, 소라미츠(Soramitsu)



Kazumasa Miyazawa는 소라미츠 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도쿄공업대학에서 MBA를 취득한 이후 소니에 입사하였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IC 카드 기반 전자 화폐 서비스인 'Edy'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2017년 소라미츠에 최고운영 책임자(COO)로 입사하여 2019년에 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또한 도쿄공업대학 교수이자 ISO TC307 블록체인 국제 표준화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활동 중에 있습니다.

소라미츠는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이로하(Hyperledger Iroha)의 개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이퍼레저 이로하는 캄보디아의 '바콩(BAKONG)'의 공식 출시에 큰 몫을 하였으며, 이는 이후 라오스의 CBDC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POC) 'DLAK/디지털 라오 킵', 솔로몬 제도의 CBDC 개념 증명 '보콜로 캐시(Bokolo Cash)' 등 CBDC 및 지역 디지털 화폐 발행 플랫폼으로써 해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라미츠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필리핀 지부와 협력하여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를 연결하여 국제 증권 결제를 위한 개념 증명에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Ole Rummel

Director, Macroeconomics and Monetary Policy Management, SEACEN 센터



Ole는 2016년 9월부터 SEACEN 센터의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관리 디렉터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영란은행의 금융 안정, 시장 및 통화 분석 분야에서 근무했던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영란은행의 중앙은행 연구센터에 합류하여 계량경제 모델링, 금융 안정성 및 시장 분야의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영란은행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프랑크푸르트의 투자은행과 룩셈부르크의 유럽위원회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경제와 금융의 여러 측면, 특히 계량경제학 모델링, 개방경제 거시경제학, 금융 안정성 및 금융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Ole은 글래스고 스트라스클라이드(Strathclyde in Glasgow)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계량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Mai Santamaria

Head of Financial Advisory team, 아일랜드 재무부(MOF)



Mai는 아일랜드 재무부에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흥 및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며 해당 분야 내 정책을 조언하고 권고 조치를 취하는 재무 자문 팀의 이끌고 있습니다. 2021년에 국경 간 원조(Cross-border aid)를 위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에 관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백서(White paper)를, 2017년에는 아일랜드 재무부의 가상 화폐 및 블록체인 토론에 관한 백서를 공동 집필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처 내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년 간 블록체인 아일랜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 2019년에는 정부 차원 최초의 공공 서비스 블록체인 해커톤을 조직하고, 이에 따라 BlockW의 공동 창립자이자 BGIN의 공동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Mai는 2020~2023년 동안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을 통해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정(MiCA) 아일랜드 측 협상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OECD 금융시장 위원회(Committee in Financial Markets, CMF)의 대표단이자 디지털 금융 분야 (임시) 전문가 그룹 (EGDF)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올해의 핀테크 공무원상을 수상했으며, Techtars-Web3 프로그램의 멘토로도 활동했습니다.

Mai는 아일랜드 재무부에 합류하기 전 20년 이상 은행 및 보험 부문에서 재무 담당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출신으로 아일랜드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 Peter Goodrich

금융안정위원회(FSB) 사무국



Peter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사무국 소속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에서 감독 및 규제 협력 상임위원회(SRC) 내 암호화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와, 비은행 금융 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NBF)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에 합류하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DOT)의 대형기관 감독 조정 위원회 (LISCC) 유동성 프로그램에서 수석 조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Peter는 미국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 및 대형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및 규제 준수 관련 수평적 조사를 주도하는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국제 유동성 규칙의 미국 내 이행과 이와 관련한 정책 개발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커뮤니티 은행 조사관으로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문가가 되어 대규모 복잡한 은행 조직에 대한 수평적 조사를 주도 하게 되었습니다.

Peter는 은행 위탁 심사관이며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에서 경제학 및 역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Ryosuke Ushida

Chief FinTech Officer, Financial Services Agency, Japan



Ryosuke는 일본 금융청 내 최고 핀테크 책임자로서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태스크 포스인 FATF의 공동 의장도 맡고 있으며, 현 직책을 맡기 전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지타운대학교 사이버 스마트 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써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재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이정두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는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및 금융법연구센터장이며, 주로 전자금융,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23년간 근무했으며, 은행·증권 회사·신용평가회사 감독, 기업공시 심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등 다양한 규제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며 규제실무를 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공시·조사 및 신용평가 관련 정책위원회에서 한국 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정두 박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증권규제분야 법학석사(LLM) 학위와 금융감독제도분야 법학박사(SJD)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이건호

대표, 금융혁신연구회



이건호 대표는 금융혁신연구회의 대표이자 예금보험공사 및 토스 은행에서 각각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금융산업에서의 기술혁신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방법」,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 「코인의 과거, 현재, 미래」, 「토큰증권」, 「블록체인과 국가」 등 암호화폐 생태계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민은행장, 국민은행 리스크관리 그룹 부행장, 조흥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MBA 및 자산관리 석사과정 주임교수,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은행경영자, 교수,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고 은행, 금융 시장 및 금융 규제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사 및 MBA를 취득한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금융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Philip Gant

Harvard Asia Centre and GBBC Korea Policy Research Advisor



Philip Gant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협회회의 한국 정책 연구 고문이자 하버드대학교 아시아 센터의 부교수이며 규제 생태계 그룹의 리서치 디렉터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는 규제 발전 동기 및 동향에 대한 연구로, 다수의 이해 당사자 간 의사결정에 대한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 또는 법을 개척하기 위해 절차 및 정책 메커니즘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과 화폐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 내 신뢰 형성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동아시아의 법률 사학자로서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학부 학위를,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중국, 일본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동아시아의 법에 대한 믿음: 시작부터 1800년까지"를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규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형성하기 위한 규제 생태계 그룹을 설립하였습니다.

## Jon Isaksen

Head of Policy, EMEA, 유니스왑(Uniswap)



Jon은 유니스왑 랩(Uniswap Labs)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정책 책임자로서 지역 전반의 정책 이슈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니스왑 랩에 합류하기 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에서 금융안정,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 연합 사무국 내 암호화 자산 관련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Jon은 유럽 연합이 암호화 자산에 대한 유럽 내 조화로운 규칙 제정 힘썼으며, 특히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정 및 초안 작성·협상을 주로 도왔습니다. 또한 G7, 금융안정 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통한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많은 국제 업무에도 관여해 왔습니다.

## Serdar Çelik

자본시장·금융기관실장(Head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Division), OECD



Serdar Çelik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본시장·금융기관실장입니다. 주요 업무는 자본 시장, 기업 지배구조, 금융 교육, 금융 소비자 보호, 보험, 연금 및 국영 기업 등에 해당하며, OECD의 금융시장위원회,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OECD 연금 예산 및 준비금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erdar는 2023년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검토를 담당했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OECD 자본 시장 검토를 주도했으며, 현재 스페인과 스웨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기관 투자자 및 자본 시장에 관한 광범위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OECD에 합류하기 전에는 터키 자본시장위원회에서 근무하며 기업 재무 보고서 검토 및 기업공개, 인수합병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Fusanori Iwasaki

Director Policy Research,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Fusanori Iwasaki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의 정책 담당 디렉터입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학 및 국제 관계학, 국제 비즈니스 연구에 해당 합니다. 현재 ERIA 내 아세안 및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연구, 자동차 부품 산업, 아시아 해양 플라스틱 문제, 아시아 중소기업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RIA에 합류하기 전 일본 학술진흥회 특별 연구원(DC1)으로 근무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대학원 법학 및 정치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세부 전공으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또한 일본 와세다대학교 자동차 부품 산업 연구소의 겸임 연구원,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의 컨설팅 연구원, 일본 무역진흥기구 내 아시아경제연구소 (IDE-JETRO) 국외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Masayoshi Chida

Senior Economist and Head of Outreach, 금융기업국(DAF), OECD



Masayoshi Chida는 자본시장·금융기관실(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Division) 금융시장과(Financial Market Units)의 Senior Economist이자 OECD 내 Outreach 활동의 팀장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주로 국제 금융 및 개발 정책을 담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Masayoshi는 현재 금융시장과 부서 내 전망 및 분석 업무에 기여하는 한편, 도쿄 라운드 테이블을 비롯한 각종 세미나를 조직하며 OECD 금융기업국 내 일본 정부 후원 프로젝트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OECD에 합류하기 전 일본 재무성,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정책 기획자 및 분석가로서, 일본 정부 및 여타 국제기구, 특히 국제통화기금과 협력하는 데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런던 정경대학에서 사회 정책 및 개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Chengyi Ong

Head of Public Policy in APAC,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Chengyi 전 세계 공공 및 민간 부문 고객에게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연구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분석 서비스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공공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정책 입안자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교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Chengyi는 체이널리시스 입사 전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10년간 근무하며 규제 및 감독, 산업 개발, 중앙은행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 Hirokazu Ishizuka

CEO, Aspiration Corp. & TERRAS-Company.com



Hirokazu Ishizuka는 Aspiration Corporation의 설립자이자 CEO로, 주요 글로벌 파트너 사들과 협력하여 보안 및 방위에 관한 정교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 컨설팅, 설문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인항공기 시스템(C-UAS)과 다양한 AI 솔루션의 도입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 산업을 포함한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OSINT) 취약점 탐지 및 위험 평가,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대응(SOAR), 보안 허가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spiration Corporation을 설립하기 전에 소니의 디스플레이 및 TV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미국에서 디스플레이 부품 및 장치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 후 소니 에릭슨에서 부사장직을 맡아 일본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헤드, 글로벌 영업 헤드 직을 역임하며 소니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소니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 런던, 벨기에, 뮌헨,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전 세계적 출장을 자주 다니며 국제적인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 Takashi Nishina

Principal Business Value Consulting, Palo Alto Networks



Takashi는 정부, 컨설팅,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다방면의 전문가입니다. 일본 재무성에서 경력을 시작하면서 G7/G20을 비롯한 국가 정책 조정과 국제 논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전략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현재 Palo Alto Networks의 비즈니스 가치 컨설턴트로서 사내 경영진에게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사내 플랫폼의 혁신 및 확장에 대한 여젠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 박정필

디지털혁신실 혁신기획팀, 한국은행(BOK)



정책효과와 금융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박정필 팀장은 2020년 한국은행의 디지털혁신실 신설 이후 혁신기획팀장으로서 데이터 및 디지털 전략 기획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국은행 입행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연구자로서의 관심 분야는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다양한 금융규제에 대한 계량영향평가와 금융규제 간 상호작용 평가입니다. 그는 거액익스포저 그룹, 신용리스크그룹, 운영리스크그룹, 조사연구T/F 등 바젤위원회 산하 실무그룹에서 정규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영란은행의 건전성감독청(PRA)에 파견되어 금융규제의

## Vanthou Chorn

Deputy Director,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부(MOISTI)



사업 개발 서비스 멘티이자 산업계 동문인 Vanthou Chorn은 10년 이상 과학기술혁신 부에서 정책 수립 및 기업가정신 개발 분야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재 Deputy Director로서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의 무역 촉진과 경제 협력에 관한 다양한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출신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캄보디아와 아세안에서 포용적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역 촉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파트너 및 일선 부처와 협력하여 캄보디아 국방부 전략 1단계에 따른 디지털 정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Laras Ayutirta Pramesti

Enterprise Architect,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Laras는 인도네시아 은행 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부서(Enterprise Architecture Division) 및 데이터 전략 정책 그룹에서 13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사적 데이터 분석(AI/ML 포함)과 「BI 정보 시스템 전략 2020-2025」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BI 옴니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기반을 설계 및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데이터 및 정보 내부 정책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AI 도입 증가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서현

정책분석관(Policy Analyst), 금융기업국(DAF), OECD



김서현(Stacy Kim) 정책분석관(Policy Analyst)은 OECD 자본시장·금융기관실의 디지털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 자연어 처리(NLP)를 중심으로, 디파이(DeFi) 및 암호화 자산, CBDC, 금융 부문 내 인공지능(AI)에 관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거시경제학, 국제금융, 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에 대한 박사 학위를 전공 및 수료 하였습니다. OECD에 입사하기 전 한국 내 투자 협회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독일·미국 FDI 데스크, 해외 IR 업무를 맡았으며, 아시아 경제를 주 포커스로 삼았습니다.

OECD - 금융위원회 - 금융연구원 라운드테이블: 아세안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

## 이현진

Senior Research Fellow,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이현진 책임연구원은 Tsinghua University에서 학사,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인공지능과 5G 기술에 대한 산업분석 및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의 동향과 이슈에 대한 다수의 보고서 및 학술자료를 작성하였고 외교부, 국가연구기관 등 주요 기관에서 외부 전문가 기고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증거 기반 정책연구입니다.

## John Ho

Head, Legal, Financial Markets,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SCB)



John Ho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의 글로벌 금융시장 법무 책임자로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지점 및 계열사의 전 세계 금융시장(FM) 비즈니스에 대한 법률 자문, 거래 및 문서화 지원을 감독하고 제공합니다. 변호사로서 금융안정 위원회의 법률,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에 관한 태스크포스 및 FIA 아시아 태평양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1) ISDA 동남아시아 법률 및 규제 위원회와 (2) ISDA 아시아 태평양 ESG 워킹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헤이그에 본사를 둔 금융시장 분쟁 해결 서비스인 P.R.I.M.E. Finance의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John은 FM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장외거래 규제 개혁을 준수하기 위해 SCB 내에서 변화를 구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간 제공 금리(IBOR) 개혁, MIFID II/MIFIR, 도드 프랭크, EMIR, CRDIV, FATCA, CCP 및 미청산 파생상품에 대한 마진 개혁 등 주요 글로벌 및 지역 규제 개혁 변화에 대해 업계 그룹 및 규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관여해왔습니다. 베어스턴스에 합류하기 전에는 도쿄 리먼 브라더스의 아시아 주식 변호사로 근무하며 전환사채, 옵션, 워런트, 델타 원 상품 및 기타 유형의 주식 파생상품 거래, 주식 금융 및 주식 자본 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995년부터 싱가포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 김수진

연구위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수진 연구위원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업금융신성장연구실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하고 기업금융 이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의 인공지능 활용 증가에 따른 장점과 과제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비즈니스 전략, 리스크 관리, 자본 수요-공급부터 모범 사례까지 금융 산업 내 다양한 주제를 10년 넘게 연구해 왔습니다. 김수진 연구위원은 고려대학교에서 재무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Iota Kaousar Nassr

선임정책분석관(Senior Policy Analyst), 자본시장·금융기관실, OECD



Iota Kaousar Nassr는 OECD 자본시장·금융기관실의 부서의 선임 정책 분석관(Senior Policy Analyst)으로, OECD 금융시장위원회(CMF)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관련 분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업으로는 디파이 및 암호화 자산 분석, 디지털 자산의 환경적 영향, CBDC, 자산 토큰화 및 초기 코인 공개, 마켓플레이스 및 핀테크 대출, 금융의 인공지능, 오픈 बैं킹 및 오픈 금융, 국가별 핀테크 생태계에 대한 국가 연구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 Iota는 금융시장위원회와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에서 금융시장, 중소기업 금융, 보험 중개 및 신규 국가의 OECD 가입 심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일했습니다. OECD에 합류하기 전 런던의 메릴린치와 씨티그룹의 M&A 데스크에서 투자은행가로 일했습니다. Iota는 에섹 그랑제콜에서 MBA를, 아테네 경제경영대학에서 회계 및 재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서병호

금융혁신연구실장,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실장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18년간 근무하며 국내 금융의 혁신을 위해 국제화, 업무다변화, 리스크관리 선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금융과 IT의 융복합, 금융보안 선진화, 오픈파이낸스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종 TF와 위원회 활동, 금융자문관 파견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TF 등 실무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ombudsman으로서 디지털 관련 민원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